한국사회 남성들의 돌봄 참여 현실과 대안 모색

문현아(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 센터)

I. 문제의식

생계부양자 남성과 집안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젠더 분업을 극복하려는 비판적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자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돌봄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자녀나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려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층에서 돌봄이 필요한 부인을 돌보거나 부모를 돌보는 남성들의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글은 가족 내에서 그런 남성들의 돌봄 참여 현실을 살펴보면서[1] 특히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에서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려면 어떤 정책적 제안들이 뒷받침되어야 할지를 살펴본다.

2. 논의의 핵심

1) 어쩔 수 없이 남성이 돌봄을 맡게 되는 상황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맥락은 대체로 가족 내에서 '본인'이외의 돌봄이 가능한 다른 '누구'가 없는 경우다. 이를 테면 아동돌봄의 경우, 육아를 담당하는 아버지들은 '부인과 맞벌이'이기 때문에, '다른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본인이 돌봄을 주로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돌보는 경우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던 중에 부인이 아프게 되어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모를 돌보는 아들은 '형제자매가 없'거나 '형제자매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맡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조력이나 지원이 가능한 '여성'의 존재가 없을 때 비로소 남성의 돌봄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다. 여전히 여성이 돌봄의 주요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실이다.

---

[1] 여기에서 인용되는 사례들은 저자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 중 남성 돌봄자들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사례에 대해서는 Moon, H, Cha, S. E., Eun, K. S., Kang E. and I. Peng. 2019. The Qualitative methodology and Survey Instruments: South

2) 나의 자유보다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돌봄을 하고 있는 남성들은 돌보는 현실 속에서 의미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쩔 수 없어서 만이 아닌 또다른 의미의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는 '내 손주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들어 앉아서' 애를 봐주고 있다고 하면서 내 핏줄, 내 가족이니까 돌본다는 마음을 강조했다. 장모를 돌보는 사위는 본인의 '스케줄을 잡지 않고' 장모님 돌보는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예전에 젊을 때 어려웠던 본인들 경제사정을 지원해준 경험을 되살리며 고마운 마음을 이제 갚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육아를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부인과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려준 남성은 '결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양육에 참여하고 있고 '결혼을 하면' 자유시간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양육할 '시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직장의 적극적 지원

인터뷰한 남성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돌봄을 전담하고 있기보다는 부인을 돕는 정도로 아동/노인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현실에서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맥락에는 몇가지 전제 조건이자 상황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성들이 다니는 직장의 '출퇴근 시간이 정확'해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거나 데려다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또는 직장 상사가 '아이 돌봄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덧붙여 손주나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의 경우, 이미 직장에서 은퇴를 한 경우가 많았다. 혹은 돌봄으로 인해 드물게는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미루어 보면, 남성들의 경우 생계 부양과 가족 돌봄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개별적 영역으로 부여되고 있어 보인다.

3. 결론 및 함의

1) 남성의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 강조

한국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서 강조되는 '일가정 양립'은 사실상 주로 여성들의 직장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고 보인다. 일은 남성의 영역, 가정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젠더 분업의 틀은 크게 흔들지 않고, 남성의 영역에서도 일해야 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의 일도 하면서 남성의 영역에서도 살아남게 할 수 있느냐가 주된 논의의 초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봄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사례를 통해 특히 젊은층의 경우를 보면 사실상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가족 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이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제 일가정 양립의 초점은 여성들로부터 남성들로 옮겨가서 남성들이 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일과 가정, 특히 가족 내

2) 결혼이라는 의미의 재구성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해 N 포세대에 이르는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는 젊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의 의미는 이미 많이 변화되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인해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기본적인 가족의 시작으로 의미화되는 결혼 자체가 쉽게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돌봄은 결혼과 동시에 혹은 결혼과 직결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의 틀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오랜 사귀는 관계에서도 돌봄이 발생할 수 있고, 이혼을 한 뒤에도 돌봄의 관계가 남아있을 수 있다.

덧붙여 결혼을 한다면, 특히 남성의 경우에 자신만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자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와 더불어 자신들의 시간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에 비해 남성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돌볼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남성들은 '칼퇴근' 직장으로 인해 돌봄 '시간'을 가지게 된 측면을 언급했던 것으로 미루어,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에 대해 가정과의 양립, 돌봄에 참여할 시간 확보를 위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길 기대한다.

3) 관계의 평등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생계부양자 남성과 가족돌봄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자리하고 있어 보인다. 21 세기에 이러한 젠더분업은 가족 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돈만 벌고 여성은 무급 돌봄만 한다는 구도는 이제는 낡은 틀이 되고 있다. 돌봄은 관계이며 누군가의 어려운 측면을 배려하며 돕는 적극적 행위이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 무엇이다. 가족 형성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 안에서나 사회적 맥락에서나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윤리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그런 면에서 돌봄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은 그 자체로 이분화된 서로 위계화된 젠더로 남아있기 보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돌봄을 통해 젠더 평등을 이루고, 젠더 평등을 통해 돌봄이 구현되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려면 젠더 평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The findings are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e Care Work Family Surveys conducted in 2018 in Korea as part of the Care Work Economy and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ling for Policy Analysis (CWE-GAM) Project. Mothers with at most three children under age 10 were selected for the samples of the childcare survey (N=500). The samples of the eldercare survey are restricted to the primary caregivers who are currently caring an elder (N=501). See the full reports for detailed data description: CWE-GAM Working Paper Series: 21-07.